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약세 경제 전망 가운데 미 소비자신뢰지수 하락
- Bloomberg: 연준 이사 Bowman, “인플레 상승 리스크” 경고
- Bloomberg: 고금리로 미 주택 구매 힘든 상황에 주택 가격 성장세 둔화
- CNBC: 미국인들 인플레 상승에 우려한다

[미국 금융]

- Bloomberg: 약세 미 경제 지표 발표에 기술주가 주식 상승 주도

[뉴욕시]

- Bloomberg: 뉴욕시,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시간 손실 90억불

[주택]

- AP: 엘런 재무장관,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발표

[글로벌 경제]

- The Economist: 전 세계 주택 시장 가격 상승의 원인은?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N Business: 가격에 민감한 미국인들, 저렴한 스테이크하우스로 간다
- Bloomberg: 테슬라, 사이버 트럭 대규모 리콜... 와이퍼 부품 결함 및 주행 중 트림 분리 문제
- CNN Business: EU, MS ‘Teams 끼워팔기’로 독점 금지법 위반 조사 착수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nsumer Confidence Declines on Weaker Outlook for Economy

미 약세 경제 전망 가운데 미 소비자신뢰지수 하락

- 비즈니스 여건과 노동시장, 그리고 소득이 둔화되는 가운데 6월 미 소비자 신뢰지수가 둔화되었다.
- 오늘 화요일 컨퍼런스보드의 신뢰 지수는 5월에 101.3으로 하락 조정됐는데 6월에 100.4로 더 하락했다. 블룸버그 전문가 평균 예상치는 100.
- 향후 6개월간 기대 지수는 2포인트 하락한 73을 기록한 반면에 현재 여건 지수는 5월 하락 조정치보다 상승했다.

- 지난 수년 동안 소비자신뢰지수는 하락하고 있는데 높은 생활비, 높은 차입 비용, 그리고 최근에는 노동 시장의 둔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소비자는 12.5%만 향후 6개월간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 수치는 지난 201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s Bowman Warns of Upside Risks to Inflation, Not Time to Cut

연준 이사 Bowman, “인플레 상승 리스크” 경고

- 연준 이사인 Michelle Bowman는 인플레 전망에 대한 여러가지 상승 리스크가 있다면서 당분간 차입 비용인 금리를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우리는 여전히 금리를 인하할 상황에 있지 않다”며 “금리 정책의 향후 변화를 고려하는 데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 그는 런던에서 이 같은 발언 이후 토론에서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 상승 압력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영역을 거론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Home-Price Growth Cools as Buyers Contend With High Rates

고금리로 미 주택 구매 힘든 상황에 주택 가격 성장세 둔화

- 주택 구매 희망자들이 고금리에 직면해 주택 구매에서 물러나면서 4월 주택 가격 상승세는 둔화되었다.
- 전국 주택 가격은 작년 동월에 비해 6.3% 감소해 3월 연이율 6.5% 상승세보다 줄었다고 S&P CoreLogic Case-Shiller 데이터는 밝혔다.
- 주택 가격과 금리가 수년 동안 상승해 구매가 활발하지 않고 매물도 타이트한 상황에 주택 구입자들은 (이사를 가려고 해도) 팬데믹 때의 낮은 금리에서 벗어나기를 주저하는 상황이다.
- 4월 모기지율이 7% 이상 상승해 구매 희망자들에게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CNBC: Concerns about inflation peak as Americans struggle to shake off a 'vibecession'

미국인들 인플레이 상승에 우려한다

- 최근 신용 보고 기관인 TransUnion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인플레이와 금리에 대해 2년 연속 우려감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 물론 미국인들은 인플레이 둔화와 강한 노동시장 가운데 그들의 구매력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미 성인들의 84%는 여전히 가장 우려하는 이슈는 인플레이, 그 다음에 주택 가격과 이자율 순서라고 이 기관의 소비자 대상 설문 결과 밝혀졌다.

CNBC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Tech Fuels Stock Gains Despite Weak Economic Data: Markets Wrap

약세 미 경제 지표 발표에 기술주가 주식 상승 주도

- 트레이더들이 부진한 경제 지표에 주목하는 가운데 대형 테크 기업들이 주식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 엔비디아의 시가 4천3백억불이 빠져나가면서 부진한 후에 오늘 랠리를 보이면서 주식은 6월의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 3일동안 기술적인 조정에 들어갔다.
- 국채는 이번 주에 3가지 국채 판매를 시작하는 6백90억불 옥션을 앞두고 소폭 움직이고 있다.
- 오늘 화요일 오전에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약화되고 미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지표가 발표된 데다 연준 이사 Michelle Bowman는 인플레이 상승 리스트 전망을 우려하면서 고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

Bloomberg: NYC Has the World's Worst Traffic Congestion, Costing \$9 Billion

뉴욕시,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시간 손실 90억불

- 뉴욕시가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로 선정되어 91억 달러의 시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데이터 분석 회사인 INRIX의 2023 글로벌 교통 스코어카드에 따르면, 뉴욕의 평균적인 운전자는 작년

에 출퇴근 피크 시간대 교통 체증으로 인해 전 세계 약 1천개 도시 중 가장 많은 101시간을 잃었다.

- 멕시코시티가 2위를 차지했으며, 런던, 파리, 시카고가 그 뒤를 이었다. 상위 10위권 내 다른 미국 도시로는 로스앤젤레스와 보스턴이 있다. 이 순위는 인구 대비 교통 혼잡의 영향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 INRIX의 교통 분석가인 Bob Pishue는 교통 혼잡은 경제 활동의 활발함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운전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시간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Bloomberg 기사

[주택]

AP: Yellen announces efforts to boost the housing supply as high prices create a crunch

옐런 재무장관,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발표

- 바이든 행정부가 높은 식료품 및 기타 생필품 가격과 높은 이자율로 인해 생활비가 급증한 상황에서 저렴한 주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니애폴리스 방문에서 향후 3년간 1억 달러를 투자하여 저렴한 주택 금융을 지원하고, 연방 금융 은행의 저렴한 주택 금융 및 기타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택 가격에 대한 공공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총선 캠페인에서 주택 경색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오랫동안 지속된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는 경제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그는 민주당 행정부가 가격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구매자와 임차인은 팬데믹 이후 주택 비용 상승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겪고 있다. Case-Shiller 20개 도시 종합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주택 가격은 지난 4년 사이 46% 상승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재무부 분석은 주택 비용이 지난 20년간 소득 증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AP 기사

[글로벌 경제]

The Economist: Why house prices are surging once again 전 세계 주택 시장 가격 상승의 원인은?

-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4월에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3% 이상 상승했으며, 미주, 호주, 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 높은 이자율과 모기지 비용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모기지 연체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주택 시장은 고정금리 모기지 덕분에 주택 소유자가 높은 이자율의 영향을 덜 받아 구매물이 줄어들고 주택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신규 모기지 신청도 상당히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이민 증가, 모기지 보유자의 희생 감내, 그리고 강한 경제가 있다. 이민자의 증가로 주택 수요가 높아졌고, 모기지 보유자들은 다른 지출을 줄이며 높은 모기지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가계 소득이 증가하여 높은 이자 비용을 상쇄하고 있으며,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여 다수의 사람이 높은 모기지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중앙은행은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했으며, 임금 상승률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모기지 보유자는 더 여유를 갖게 될 것이며, 제한된 주택 공급과 높은 수요로 인해 주택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Economist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N Business: Affordable luxury: Price-conscious Americans are turning to cheaper steakhouses 가격에 민감한 미국인들, 저렴한 스테이크하우스로 간다

- 최근 미국에서는 저렴한 스테이크를 제공하는 텍사스 로드하우스와 룡혼 스테이크하우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Reddit에서도 “텍사스 로드하우스를 사랑합니다”라는 게시글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러한 체인점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가치를 제공해 많은 고객의 만족을 끌어내고 있다. 룡혼 스테이크하우스의 1인당 평균 계산은 26달러,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22달러로, 고급 스테이크하우스보다 훨씬 저렴하다.
- 이는 미국인들이 최근 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대부분의 레스토랑 체인이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에 타격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맥도날드도 저소득층 소비자가 줄고 있다고 보고했다.
- 이러한 소비 감소 추세 속에서 스테이크하우스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레스토랑이 팬데믹 이후 가격을 올리는 상황 속에서도 텍사스 로드하우스와 룡혼 스테이크하우스는 물가 상승률 이하로 가격을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두 레스토랑은 고객 만족도 지수에서 꾸준히 높은 점수를 받으며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 또한, 소고기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많은 소비자들은 집에서 비싼 스테이크를 요리하기보다는 레스토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테이크를 즐기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연방 노동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5월까지 지난 1년간 소고기의 가격은 5.7%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 외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텍사스 로드하우스와 롱혼 스테이크하우스는 이러한 트렌드의 혜택을 받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Tesla Recalls Cybertrucks Twice in One Day to Fix Windshield Wipers, Detaching Trim

테슬라, 사이버 트럭 대규모 리콜... 와이퍼 부품 결함 및 주행 중 트림 분리 문제

- 테슬라가 앞 유리 와이퍼 부품 결함과 주행 중 트림 분리 문제 때문에 1만1천대 이상의 사이버트럭을 리콜한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와이퍼 모터와 트림 부품을 교체하거나 재작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각각 차량의 2%, 1%에 해당한다.
- 사이버트럭은 예정된 인도 시기보다 몇 년 늦은 11월에 출시되었으며, 이후 제동 문제로 약 220만 대, 패달 이탈 문제로 3천9백 대를 리콜하는 등 여러 차질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 트럭의 앞 트렁크가 손가락으로 닫히는 영상이 여러 소유자에 의해 게시되기도 했다.
- 테슬라는 와이퍼 모터 고장을 2월 초에 확인하고 공급업체와 함께 분석을 진행했으며, 이 문제로 인한 충돌, 부상 또는 사망은 없다고 밝혔다. 트림 부품 문제는 12월 말 장식용 어플리케가 누락된 상태로 배송된 후 5월에 고객 차량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생하며 발견되었으며, 부실한 설치로 인해 트림 부품이 느슨해지거나 분리되는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Microsoft faces mega fine after EU takes issue with bundling of Teams and Office

EU, MS 'Teams 끼워팔기'로 독점 금지법 위반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 관리들이 Microsoft가 화상회의 앱인 Teams를 다른 인기 있는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끼워 팔아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EU가 미국 거대 테크 기업에 도전하는 최신 사례로, 혐의가 확정되면 MS는 최대 1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이번 발표는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EU가 Apple을 고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Apple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가 확정되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다.
- 디지털 시장법은 지난 3월에 발효되었으며, 지배적인 기술 플랫폼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EU의 이번 조치는 수억 명의 유럽인이 세계 최대 디지털 플랫폼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빅 테크 기업의 힘을 견제하려는 유럽 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준다.

CNN Business 기사

"월가 은행, 부동산 부실대출 조용히 처리...단발성? 大위기 전조?"

NYT "은행권, 만기연장 후 문제없는 척하는 전략적 한계 도달" "전체 부동산 대비 극히 일부" vs "대중, 문제 심각성 인식 못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월가의 주요 금융회사들이 이와 관련한 부실 대출채권을 은밀히 매각하며 손실 처리에 나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은행 도이체방크의 한 계열사와 다른 독일계 금융사는 지난해 말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의 115년 된 '아르고노트 빌딩'에 대한 대출 채권을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패밀리오피스에 매각했다.

비슷한 시기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지에 보유하고 있던 사무용 빌딩 관련 부실 대출채권을 매각했고, 지난 5월에는 캐나다 금융사 CIBC가 3억 달러 규모의 사무용 건물 관련 대출채권의 매각을 완료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